사·부·대·중

역사드라마 신드롬



도각스님
〈동국대 강사, 불교사〉

현대를 흔히 매스미디어 시대라 한다. 매스컴 없는 생활은 하루도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직접 매스컴과 만나는 시간을 내는 것이 꼭이 쉽지만은 않다. 산사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사 돌아가는 일은 매일 저녁 9시 뉴스 정도로 마감하고 불교계 소식도 주간 불교계 신문을 보거나 불교방송을 듣는 정도이다. 하물며 주중(週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요사이 주중에 방영하는 드라마 상당부분이 역사물이라는 것은 주의를 끄는 일이다. 이것은 모 방송에서 역사물 다룬 것이 성공적인 반향을 얻은 후의 영향이라 한다. 요즈음은 국내 제반 사정도 시쿤둥 하여 역사드라마에 시청자가 쏠린다는 것이다. 통상 역사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이나 그 내용은 거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은 연출자나 각색자, 연기자 등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차제에 좀더 시야를 넓혀 지배자 중심, 정치사 중심의 사고방식에서의 탈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의 발굴, 새시대 인식에 맞는 다양한 소재, 이러한 것 등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전에 조선조 유명한 의사 허준을 다룬 드라마가 크게 히트했다. 기존의 안일한 재탕식의 각색에 만족하지 않고 발굴되지 않은 인물, 소재 등을 찾아 펴나간 것이 대중의 호응을 얻은 것 같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다. 역사의 재해석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고 해법을 찾기도 한다.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가 원하는 다양한 인물상이나 소재를 찾아 우리네 삶의 활로를 모색해보는데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우리의 삶은 희망에 충만해 있고 항상 감사하며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어야 한다(唯唯生一色 八面起淸風). 역사가 그러한 현재의 삶, 현장의 삶,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있을 때, 진정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되리라.

목탁소리

'말없는' 총무원과 승가대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20일 중앙승가대 이사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동산 임대 및 고시원 운영업체인 범진유통과 안암학사를 5년간 고시원으로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은 14일 중앙승가대 이전 대책위가 정대스님에게 안암학사에 관한 결정권을 넘긴 지 불과 6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와 교수협의회, 총동문회, 총학생회는 결의문을 내는 등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임대계약에 대한 반대도 반대지만, 학교 당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처사에 깊은 불만을 표시했다.

중앙승가대의 한 관계자는 "계약이 끝난 뒤에야 법인사무처장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계약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협의는 고사하고 사전에 통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총무원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최고 결정권자인 이사장이 학교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이전대책위에서 최종 결정권을 이사장에게 맡기기로 한 만큼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총무원 관계자의 말대로 지휘체계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이뤄져야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지, 권위를 내세울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앙승가대 정상화를 외친다는 것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안암학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승가대와 관련된 난제가 태산처럼 쌓여있다. 무엇보다 충분한 의견교환이 우선돼야 한다. 불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등-어둠 사르고, 향로-번뇌 태우고

참불자의 길 — 공양구(供養具) 종류와 의미



◇지극한 마음을 담아 행하는 공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서원이다. 향로에 향을 사르는 불자.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릴 때 음식이나 꽃, 차, 향 등을 담는 갖가지 그릇을 공양구(供養具)라고 한다. 불보살에게 올리는 공양 그릇이므로 최고의 솜씨와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것들이다. 향로, 사리구, 다기, 물병, 등, 꽃병, 바루 등이 그것이다.

향 공양을 올리는 공양구는 향로(香爐)다. 향로는 지극한 존경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향 공양이 공경공양으로서 널리 행해지면서 가장 대표적인 공양구로 자리잡아 항상 불단의 중앙에 배치된다. 향로는 쓰임새에 따라 불단에 봉안되는 '완형향로'와 들고 다니면서 의식하는 '병향로'로 나눌 수 있는데, 병향로는 마애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자들은 자신의 몸을 태워 향기를 만들어 내는 향 공양을 불전에서 행함으로써 자신 속에 내재된 번뇌망상을 말끔히 씻어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서원하며, 그 공덕으로 인하여 불보살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는다.

등(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게 하는 용기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에 등불을 밝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광명등'이라 부르기도 한다. 불전 앞에 밝힌 촛불, 법당에 걸려 있는 연등과 법당 앞마당의 석등 모두가 어둠을 사르는 공양구다. 이들 외에도 재료에 따라 종이등, 베등, 나무등, 구리등, 돌등, 자기등, 옥등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사리구(舍利具)는 사리를 탑 속에 봉안할 때 담는 용기를 말한다. 이 사리구는 직접 사리를 담는 그릇인 사리용기와 이 용기를 다시 감싸고 장엄하기 위한 외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불상과 경전, 장신구 등 각종 공양품도 함께 들어간다.

물병(水甁)은 물을 담는 그릇으로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물, 감로수를 담는 병이라 하여 정병(淨甁)이라 하기도 한다. 감로수는 중생들의 목마름 즉 고통을 없애주는 물이다. 관음보살이나 미륵보살, 제석천 등도 이런 병을 들고 있다.

바루(鉢盂)는 음식은 담는 공양구다. 바루는 성도하신 부처님이 사천왕이 마련한 바루에 어느 상인이 올린 죽과 꿀을 받아 드셨던데서 유래

목마름 없애주는 물병

바루, 출가정신의 상징

"진실한 공양은 마음"

했는데, 부처님 당시 출가수행자들은 이 바루로 탁발하는 수행을 행하기도 했다. 오늘날 사찰에서 행하는 바루공양은 탐욕과 집착을 떠난 출가정신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다기(茶器)는 차문화의 발달로 공양구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통일신라 때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불교 선종의 발달과 함께 9세기부터 차공양은 필수가 되었고, 찻물을 담아 올리는 다기 또한 중요한 공양구의 하나가 되었다.

공양의 참된 정신은 대승불교의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 중 보시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재물을 베풀어 주고, 마음이 풍요롭지 못한 자에게는 부처의 가르침을 베풀어 항상 마음을 여유롭게 하며, 두려움에 차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 주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을 사르고, 등불을 밝혀야만 공양이 아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하고 말하는 것처럼 생활 가운데 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그 마음이야 말로 진실한 공양이요, 공양구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㉗

하운사(夏運使)에 대한 답서

도는 묵묵히 계합할 수 있을 뿐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편지를 보니, 도(道)에 계합하면 하늘과 땅이 같은 곳이요, 뜻하는 바가 다르면 얼굴을 마주 보아도 초나라와 월나라 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지 못하는 묘(妙)함입니다. 그 전하지 못하는 묘함은 그대가 뜻을 내어 저에게 편지를 쓰고자 할 때, 붓을 잡고 종이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양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또 무엇 때문에 견인위(堅忍位)와 구경위(究竟位)를 기대하여 뒷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이 도리(道理)는 오직 증험(證驗)해 본 자라야 묵묵히 서로 계합할 뿐, 속인들에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사람 : 도(道)는 본래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조금도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없다. 마치 진흙으로 여러 모양의 물건을 빚어 만들 때, 만들어진 물건은 온갖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 재료는 전부 동일한 진흙이듯이, 앞에 나타나는 온갖 다양한 경계(境界)는 전부 도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도가 보는 작용을 하여 온갖 색깔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듣는 작용을 하여 온갖 소리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냄새 맡는 작용을 하여 온갖 냄새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맛보는 작용을 하여 온갖 맛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느끼는 작용을 하여 온갖 감촉의 경계가 나타나고, 도가 생각하는 작용을 하여 온갖 의식의 경계가 나타난다.

이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할 때에 이미 도가 그곳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떠나서 달리 도를 찾거나 닦는다거나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이름과 관념을 세우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그러므로 '도는 닦을 것이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찾지 않으면 도가 늘 눈 앞에 있지만 찾으려 하면 도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거사는 침묵하여 모든 보살들의 분별심을 잠재우고 도를 오롯이 드러내었으며, 이조혜가 스님은 단지 절하는 것만으로 도를 드러내어 보리달마의 법을 계승하였으며, 임제 스님은 앞에 나타나는 자가 있으면 모조리 대기대용(大機大用)의 활발한 작용을 행하여 도의 존재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도는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눈밝은 사람에게는 이미 도가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헛된 모양과 이름만을 따라 다니는 어리석은 속인은, 도를 설명하고 활작용(活作用)을 보여주어도 오히려 이름과 모양만을 쫓아서 더욱 번다한 망상에 빠질 뿐이다. 도의 비밀스런 존재는 오직 증험(證驗)해 본 사람만이 아직 입을 열지도 않고 붓을 들기도 전에 묵묵히 계합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사람 : 도(道)라니 무슨 더러운 소리냐? 도도 없고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여기에서는 티끌 하나도 용납지 않는다. 털 끝만한 차이가 곧 하늘과 땅의 차이이며, 번갯불처럼 빠르더라도 이미 어긋난 것이다.

셋째 사람 :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흘러간다.

넷째 사람 : 악!(고함 소리)

다섯째 사람 : 휙-(방망이 휘두르는 소리)

여섯째 사람 : …(침묵)

자, 독자 여러분! 이 여섯 사람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해도 저의 뜻과 계합치 못할 것이며, 다르다고 해도 저의 뜻과 계합치 못할 것입니다. 견처(見處)의 깊이는 여섯이 제각기 다르나 그 작용은 모두 같다고 말하지도 마시고, 침묵을 지키고 있지도 마시고, 남의 흉내를 내어서도 안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저의 뜻과 계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속지 않는 것이 귀한 사람입니다.

http://www.mindfree.net/